

강호가사에 투영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

박영주*

<차 례>

1. 논의의 목적과 방향
2. 조선조 사대부의 자연인식과 생태의식
3. 강호가사에 투영된 생태적 상상력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강호가사로 통칭되는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가사 작품에 투영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사유와 삶의 방식에 깃든 지혜로부터 오늘의 녹색지향적 문화와 생태문학에 전망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우리 고전시가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강호가사를 위시하여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문학작품 속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과 가치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삶과 가치의식은 우주 만물을 ‘서로 화합하는 유기적 총체’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우주 만물은 순환하고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질서나 이치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대대적’ 사유, 나아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대표자’로서의 인간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함으로써 ‘물아일체’라는 이상적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지향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 강릉원주대학교

강호가사에서는 이러한 ‘물아일체’의 경지이자 정서가 대상과의 ‘대대적’ 관계맺기를 통해 크게 세 갈래 양상으로 형상화된다. ‘생생불식’하는 자연의 이법과 질서를 성찰하여 자연의 생명성과 조화를 묘사·형용하는 양상으로 술회되기도 하고,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대대공존’의 관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각·체현하는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자연의 경물이 자아내는 흥취에 몰입·동화되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로 형상되는 것이 그것이다.

강호가사 작품 속에 투영된 이와 같은 사유와 상상력은 자연의 생태적 질서와 원리에 바탕을 둔 삶의 태도 및 현실성을 담보한 실천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유와 상상력은 오늘의 녹색지향적 문화와 생태문학에 다채롭고 풍부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제공하면서, 정서적 국면에서도 새로운 감각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강호가사, 생태적 사유, 생태적 상상력, 대대적 사유, 물아일체

1. 논의의 목적과 방향

고전문학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작품 당대적 의미 규명과 함께 오늘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삶의 문제와 연관시켜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전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사유와 삶의 방식이다. 특히 자연을 노래한 우리 고전시가 작품들에 투영되어 있는 선조들의 사유와 삶의 방식은 대부분 생태친화적이라는 면에서, 그 특징과 의의를 구명하는 작업은 오늘의 녹색지향적 문화와 문학적 상황 속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가사 작품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강호가사로 통칭되는 이들 작품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는 바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공생하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은, 오늘날 녹색담론이나 생태시로 대표되는 친자연적 가치 지향의식과 상통하는 바 크다. 물론 오늘의 녹색담론이나 생태시는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삶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강호가사를 위시한 근대 이전 시가에 두드러진 친자연적 가치 지향의식은 자족적 성격의 것으로서, 이러한 위기의식이나 자각과는 별도의 국면에서 자연과의 조화와 공생을 추구한 것이다. 따라서 그 발생적 토대는 다르다. 그러나 생태 문제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 삶의 보편적 사안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독일에서 본격 제기된 녹색 혹은 생태와 결부된 문학적 담론은 우리의 경우 현대시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급격히 부상하여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다.¹⁾ 반면 고전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2000년대에 와서 이루어졌으며, 그 수를 헤아릴 정도로 시도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시조 장르에 집중되었다.

고전시를 대상으로 한 기존 논의는, 자연을 노래한 시조 작품들에 나타난 사대부의 자연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을 생태미학 또는 생태시로서의 가능성 차원에서 논의하거나²⁾, 이러한 인식 위에서 오늘의 생태주의적 태도나 생태시에 전망적 관점을 시사하고자 한 논의가 주종을 이룬다.³⁾ 또 교육학 학위논문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연친화적 시조 작품들

1) 녹색·생태와 결부된 그동안의 문학적 담론에 대해서는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문학 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8, 7~31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검토된 바 있다.

2) 박혜숙,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제42호, 녹색평론사, 1998 ;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제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 김상진,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기녀시조」, 『시조학논총』 제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 유해춘, 「자연시조에 나타난 녹색담론」, 『시조학논총』 제37집, 한국시조학회, 2012.

을 가치화하여 오늘의 교육 현장에서 생태교육 자료로 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 그리고 가사를 대상으로 한 논의로는, 김득연의 <지수정가>에 나타난 생태적 상상력과 자연인식을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의가 현재로서는 유일하다.⁵⁾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및 기존 논의를 토대로,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가사 작품에 투영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사유와 삶의 방식에 깃든 지혜로부터 오늘의 녹색지향적 문화와 생태문학에 전망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우리 고전시가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시도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시조 장르에 집중된 우리 고전시가의 생태와 결부된 문학적 담론의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거니와, 4음보격 연속체 율문의 양식적 특성을 지닌 가사는 우리 문학사상 자연에 대한 사유와 정서를 가장 구체적이고도 집중적으로 노래한 장르인 점에서, 본고의 목적과 방향에 적절히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조 사대부의 자연인식과 생태의식

‘자연에 대한 인식이 곧 문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연의 질서와

3) 조해숙,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흥취와 생명력」, 『돈암어문학』 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 유정선, 「시조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 『한국시가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 이미정, 「조선전기 시조의 자연과 생태의식 연구-생태시의 인식 기반 모색을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 강미진, 「강호시조의 생태주의적 의의와 교육」,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한연주, 「생태주의 관점에서의 시조 교육」,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홍길, 「우리 시조에 나타난 생태미학 연구-자연친화와 생명존중 사상을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최미정, 「조선중기 향촌 유학자의 생태적 상상력과 자연읽기-풍수지리에 의한 <지수정가> 재조명」, 『한국학논집』 41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아름다움은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동경 대상이자 지향점이다. 문학이 궁극적으로 삶과 생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때, 자연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생명이 자연을 떠나 존재할 수 없듯, 문학을 포함한 예술 또한 근원적으로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으로부터 벗어나 존재하기 어렵다.

시조와 가사로 대표되는 조선조 사대부 시가는 자연을 노래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연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원한 사유 및 정서를 기반으로 그들 특유의 미의식과 가치의식을 다채롭게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자연과의 관련을 통해 모색되면서 더욱 풍성해졌으며, 그래서 서인지 자연을 예찬하는 시풍이 시대를 풍미하였다.

사실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통해 추구되어 온 문학의 주요한 모티프다. 특히 동양적 인식에 있어서 자연은 현실과 대립되거나 소외된 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지닌 존재는 아니다. 자연은 본래 이성과 감성이 미분화된 세계, 주관과 객관, 주체와 객체가 혼용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⁶⁾ 그렇기에 이와 같은 자연인식에 기초한 문학작품들은 자연과 우주의 만물이 상호 연관하에 존재하고 작용을 한다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동양적 사유에서 유기체적 자연관은, 천지의 위대한 덕은 ‘생’ 즉 만물을 생하는 데 있으며[天地之大德曰生], 만물을 생하고 생하는 것을 ‘역’이라 일컫는다[生生之謂易]는 『주역』의 표현, 그리고 ‘천지가 만물을 생한다’[天地生物]라고 한 『중용』의 생명사상에 기초해 있다.⁷⁾ 특히 천지자연의 끊임 없는 생산력을 ‘생생불식(生生不息)’, 즉 만물을 생성하고 양육하는 원천인 천지를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우주 생명의 창조와 재생 과정을 생생(生生)으로 설명하고, 활동이 쉬없이[不息] 이루어지

6) 배다니엘, 「중국 자연시와 서구 생태시의 비교적 고찰」, 『중국연구』40집,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2007, 203면 참조.

7) 이종호, 「퇴계 이황의 유기체 우주론과 생태사상」, 『한국한문학연구』 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39면.

는 이법과 원리를 ‘생생불식’으로 표현한 『주역』의 표현은 동양의 유기체적 자연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연은 그 자체로 질서를 머금고 있으며, 그 스스로 질서의 운행방식을 인간에게 내적 구조의 모습으로 현시한다. 그 현시되는 방식이 바로 자연의 미적 질서다. 미적 질서로 충만된 자연이라는 공간은 절충과 관용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주체적 활동 공간이 된다. 이런 정신이 동아시아인의 자연관의 원류가 되었으며, 한국인의 자연관도 같은 맥락에서 말할 수 있다.⁸⁾

근대 이후 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명에서의 자연은 대체로 ‘자원’을 뜻한다. 자원은 우리가 구하고 소비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관계 설정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조 사대부의 세계인식에 있어 자연은 ‘하늘의 본성을 구현한 존재’로서, 본받고 순응해야 할 대상일 수는 있으나, 결코 지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면모가 곧 조선조 사대부의 자연인식이 생태주의적 자연관과 합치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생태(生態)’라는 말은 단어 자체만으로는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뜻한다.⁹⁾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무생물까지를

8) 김형철 외 6인, 「한국인의 자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보고서, 2001, 54면 참조.

9) 生態 또는 生態學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콜로지(ecology)’의 번역어로 간주한다. 19세기 말 에른스트 헤켈이 제시한 개념인 ‘에콜로지’는 특정한 유기체와 주변 환경 간의 연관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어원 자체를 따져볼 때 에콜로지는 ‘eco(집·환경)’와 ‘logos(학문)’가 결합된 말이다. 반면 동양에서는 8세기 杜甫의 시 <曉發公安>에 등장하는 ‘物色生態能幾時’의 ‘生態’가 그 하나의 예로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용했는데, 이러한 ‘에콜로지’와는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자어 ‘生態’의 의미는 ①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냄[顯露美好的姿態], ②생동적인 모습[生動的意態], ③생물의 생리 특성과 어우러진 모습[生物的生理特性和生活習性]으로서, 단어 자체만을 따지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뜻한다.(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七』(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1513면 참조.) 요컨대 ‘에콜로지(ecology)’가 생태계 안에 사는 생물보다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바깥 환경에 보다 주목한다면, ‘生態·生態學’은 사람을 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어떠한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물론 물이나 흙과 같은 무생물까지 모든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한 개체는 다른 개체와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므로, 서로의 생명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바, 이러한 생명공동체의 상호관련에 토대를 둔 개념이 곧 ‘생태’인 것이다. 따라서 ‘생태’라는 말은 생명공동체의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면서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 및 환경과의 관계가 내포의 핵심을 이루며, 가치 지향의식으로 연계·발전되는 양상을 지닌다.

생태적 관점은 자연을 보는 시각과 태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근본적 관계에 대한 물음이 전제되어 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자연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와 관련된 인식의 출발점이자 세계관의 본질은 인간의 삶과 결부된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서 잘 드러난다.

인간의 삶과 결부된 자연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인식과 생태적 관점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대대적(對待的)’ 관계 즉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로 파악한다. 다른 존재는 어떤 존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면서 보편적 특성이 되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인식과 생태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본보기로서, 퇴계 이황(退溪 李滉 · 1501~1570)의 <도산잡영기(陶山雜詠記)>의 일부를 옮겨보기로 하겠다.

시한 생물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자연 환경에 결부된 삶 자체에 보다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에콜로지’보다는 ‘생태·생태학’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이도원 엮음,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5면 참조.)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하기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노니는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닐며, 좋은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한껏 즐긴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책상을 마주하여 잠자코 앉아 삼가 마음을 다잡고 이치를 궁구할 때, 간간이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흐뭇하여 밥 먹기도 잊어버린다. (중략) 또 봄에는 산새가 즐거이 서로 울고,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 무성하며, 가을에는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겨울에는 눈과 달이 서로 엉기어 빛난다. 네 계절의 경치가 이처럼 서로 다르니, 흥취 또한 끝이 없다. 그래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올 때가 아니면, 어느 날이나 어느 때 나가지 않는 날이 없고, 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이와 같다.¹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사대부의 강호생활이 잘 드러나 있다.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누정과 같은 별도의 거주 공간을 마련하여, 계절마다 조화롭게 순환하는 자연을 노래하면서 자연의 심성을 닮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점점이 묻어난다. ‘생생불식’하는 자연의 거짓없는 자태와 있는 그대로의 드러남을 깨닫고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인식과 삶의 방식 속에는, 질서정연한 순환과 조화로움으로 대변되는 자연의 이법과 심성에 동화하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고, 자연의 물상들이 자아내는 흥취와 전원생활이 가져다 주는 정취를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담겨져 있다. 그리하여 자연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하는 궁극의 단계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른바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인 동시에 그 경지에서 경험하는 정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조 사대부들의 자연인식과 생태의식은 비록 인간우위이기

10)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押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對案嘿坐 兢存研索 往往有會于心 輒復欣然忘食……若夫山鳥嚶鳴 時物暢茂 風霜刻厲 雪月凝輝 四時之景不同 而趣亦無窮 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 無時無日 而不出 出如是 返亦如是：李滉, 『陶山雜詠記』, 『退溪全書』 卷3·詩.

는 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이분시켜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도리어 자연을 감싸 안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세계 전체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 이상으로 삼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대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 내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요컨대 ‘자연의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대표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인간우위의 자연주의’ 또는 ‘자연친화적 인간주의’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이야말로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오늘의 생태학적 관점이나 생태시에서는 그동안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과 파괴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생태파괴가 일어난 것이 ‘인간중심주의’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최소한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반인간중심주의’, 또는 여기에서 나아가 ‘자연중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를 펴는 것이 상례다.¹²⁾ 특히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심층생태학¹³⁾의 논리는 추상에 가깝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심층생태학의 생태중심주의는 지나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담화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 한계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향의식은 다만 관념적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 자연 또한 인간을 떠나 생각하기 어렵다. 자연이 자연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인간과의 조화

11) 이동희, 「한국 성리학의 환경철학적 시사」, 『동양철학』 13집, 한국동양철학회, 2000, 35면 참조.

12) 현대 생태학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논의는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한국시학연구』 1집, 한국시학회, 1998, 272~275면 참조.

13) ‘심층생태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1998, 274면 ; 이남호·김원중·우찬재, 「환경문제와 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12~14면을 참조.

를 이름으로써 가능하며, 자연은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생태적 관점 혹은 각성이란 ‘자연 내 존재로서 인간의 올바른 삶에 대한 모색’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고려하면서도 인간분위로만 생각하지 않고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을 포함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심층생태학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생태학적 관점이나 생태시의 지향은 세계 내에서 인간 존재가 차지하는 위상이자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다분히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논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문명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같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 현실적 실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오늘의 생태시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하면서도, 현실고발이나 문명비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오히려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 관계로 오인할 여지를 남겨, 목적의식을 앞세워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이라는 인식은 타당하지만,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면서 자연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적 존재이지 자연적인 존재 그 자체이기만은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 본위의 시각에서만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고전시가에 투영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자연의 이법과 순리에 동화하고자 하는 인간, 나아가 이러한 이법과 순리가 일상 속 삶으로 이어져 인간과 자연이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상적 경지를 문학적 이미지와 형상들로 구현해 낸 결과가 곧 자연예찬의 시풍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조와 가사로 대표되는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문학작품 속에는 세계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삶과 가치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삶과 가치의식은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서로 화합

14) 박희병, 「한국의 사상적 전통과 생태적 관점」,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3면.

하는 유기적 총체'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주 만물은 순환하고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질서나 이치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대대적' 사유, 나아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대표자'로서의 인간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함으로써 '물아일체'라는 이상적 경지에 이르하고자 하는 지향의식이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지향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문학작품들로부터 우리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으며, 오늘의 생태학적 관점이나 생태시가 확충해야 할 전망적 시각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강호가사에 투영된 생태적 상상력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강호가사를 위시한 자연예찬의 시풍이 표방하는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의 요체는 '물아일체(物我一體)'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자연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하고자 하는 지향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강호가사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물아일체'의 경지이자 정서가 대상과의 '대대적(對待的)' 관계맺기를 통해, 그리고 자연의 경물들이 자아내는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슬회된다. 대상과의 '대대적' 관계맺기 양상은 자연에 대한 '성찰', 자연과의 '교감', 자연에의 '동화'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자 과정을 통해 작중화자의 정서가 다채롭게 형상화된다. 다음에서 이와 같은 '물아일체'의 경지이자 정서를 중심으로 강호가사 작품에 투영된 생태적 상상력의 특징적 면모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성찰-生生不息

자연은 말이 없다. 말 없는 자연의 말을 들으면서 자연이 현시하는 생명현상을 성찰하고 이를 감각적 묘사를 통해 언어화하는 과정은 인간과 자연 곧 자아와 대상 사이의 대대적 관계맺기의 한 양상이자 생태적 상상력의 표현이다.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히
 亭子(정자) 압 너븐 들히 兀兀(울울)히 퍼진드시
 넓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지 마니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빅얏바
 닳는 듯 쓰로는 듯 밤늦즈로 흔르는 듯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긏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력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蘆花(노화)을 사이 두고 우리곰 좃니는노 〈면앙정가〉

澄潭(정담) 깊흔 곳의 노프니는 絶壁(절벽)이오
 옥긏튼 여흘은 김 편듯 흘러 잇다
 외로운 天柱(천주)는 무슴 괴운 타나이서
 九萬里(구만리) 長天(장천)을 구죽히 맞쳐시며
 완전흔 水山(수산)은 무슴 마음 먹어이서
 풀쳐 간는 듯 돌치며 소숫는 듯
 그 남은 衆峰(중봉)이 수업시 버러시니
 멀리 뵈나니는 綽約(작약) 佳人(가인)이
 嬌態(교태)를 못 감초아 翠眉(취미)를 쨍기는 듯
 갓가이 뵈나니는 龍眠(농면) 畫工(화공)이
 水墨(슈묵) 新粧(신장)을 彩筆(치필)노 돌넌는 듯 〈매호별곡〉

활발한 생명력을 잉태한 자연의 경물들을 각기 개성적인 시각에서 묘사·형용하고 있다. 〈면앙정가〉의 경우, 정자 앞 넓은 들판을 흐르는 시냇물과 해오라기떼의 움직임을 노래하고 있다. 넓어졌다 길어지기도 하고 푸른 빛이다가 흰 빛을 띠기도 하는 시냇물의 형상은 마치 두 마리의 용

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시냇가 모래사장 위에서는 해 오라기떼들이 무엇을 어르는지 갈대밭을 사이에 두고 모였다 흩어졌다 쫓았다 쫓기었다가 한창이다. 들판과 시냇물의 원경, 모래사장과 갈대밭 해 오라기의 근경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¹⁵⁾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자아낸다. 여기에 다채로운 비유를 통해 형용되는 경물의 형상들은 우리말 표현의 묘와 함께 생동감을 더한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광과 정취를 달리하는 자연의 물상과 그 생동적인 율동들에서 천지만물을 쉽없이 생성해 내는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순수한 감동을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태탕한 봄의 흥취에 실어 노래하고 있다.

<매호별곡>의 경우 역시 한 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한다. 맑은 연못 위로 솟아오른 절벽과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 시냇물로부터, 드넓은 하늘을 받치고 있는 듯 우뚝이 솟은 나무,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 에둘러 감싸며 솟아오른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멀리 보이는 산수의 곡선들은 마치 가냘프고 맵시 있는 미인이 교태롭게 눈썹을 찡그리는 듯하고, 가까이 보이는 산수의 경물들은 뛰어난 화공의 채색 붓놀림인 양 화려하기 그지없다. 누대 주변을 둘러싼 풍광과 물상들로부터 자연의 천지만물을 쉽없이 생성해 내는 현란하면서도 조화로운 생명력을 역시 다채로운 비유를 통해 형용하고 있다.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은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자연을 가까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지속 속에서의 변화를 원리로 펼쳐지는 자연의 무한한 생명력과 다양성에 시선을 머물러 두고 이를 완상하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 그 한 모습이다. 자연은 다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의 경물들을 자신이 포착한 시선과 언어를 통해 노래

15) 최진원은 고전시론이 ‘詩中畫 畫中詩’를 강조한 것에 착안, 송나라 郭熙의 화론을 빌려 高遠·深遠·平遠의 세 관점에서 화자가 면양정과 주변 경치를 그린 것으로 작품을 분석한 후, “<면양정가>는 가사문학에 詩畫一致의 신기축을 열었다.”는 논의를 편 바 있다. 즉, <면양정가>를 한 폭의 산수화로 해석하였다.(최진원, 「면양정가」의 畫中詩-山点透視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71~77면 참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연과 화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갖 물상들이 생겨나고 자라면서 펼쳐지는 장엄한 드라마와도 같은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 그 생생불식(生生不息)하는 천지의 생명력과 조화감을 자연의 본질로 파악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단면을 위의 작품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호가사에서 두루 확인되는 이러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은 생생불식하는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에 대한 보다 내밀한 성찰로 이어지면서 경이와 찬탄으로 드러난다.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꺾여 잇고
 綠楊芳草(녹양방초)는 細雨中(세우중)에 프르도다
 갈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조화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상춘곡>

그 중의 조흔 거시 무어시 더 나흔이
 龜巖(귀암)이 물을 굽펴 千百尺(천백척)이 소스올나
 雲霄間(운소간)의 特立(특립)하야 太空(태공)을 괴와씨니
 어위야 自天臺(자천대)야 네 일흠이 果然虛得(과연허득) 아니로다
 文章(문장)이 富贍(부섭)한들 누 詩(시)로 다 써너며
 畫工(화공)이 神妙(신묘)흔들 한 붓으로 다 그릴가
 秋風(추풍)이 건듯 부러 입입히 불거씨니
 물드린 織女錦(직녀금)은 鏡面(경면)의 거러는 듯
 花香(화향)은 擁鼻(옹비)하고 百果(백과)는 익어난디
 梅花盆(매화분) 梔子器(호자기)에 黃白菊(황백국)이 석겨서라
 風景(풍경)도 조컨이와 物色(물색)도 그지읍다 <봉산곡>

<상춘곡>의 경우, 활짝 피어난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붉게 빛나는 정경에서, 초록빛이 완연한 버드나무 사이로 갓 돌아난 새싹이며 풀꽃들이 봄비에 젖고 있는 정경에서, 조물주인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과 조화를 실감한다. 그 물물마다 찬탄을 자아내는 자연의 정교하고도 아름다

운 정경을 ‘造化神功(造化神功)’으로 기리고 있다.

<봉산곡>의 경우는, 구름 속에 우뚝이 솟아올라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의 기묘한 형상, 가을 다가오자 형형색색 물들어 거울 수면 위에 곱고운 비단으로 걸려 있는 단풍, 꽃향기 강렬하게 코 끝에 어리면서 오곡백과 익어 있는 정경, 창가 발치계에 놓인 화분에 때 되어 피어난 황백색 국화 등에서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과 조화를 실감한다. 그러면서 이렇듯 아름답고도 그지없는 물상들을 제아무리 뛰어난 시인들 이를 다 형용할 수 있으며, 제아무리 신묘한 화공인들 이루 다 그려낼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며 또한 자연의 신묘한 공덕을 노래하고 있다.

‘造化神功’으로 대변되는 이와 같은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에 대한 경이와 찬탄 역시 ‘생생불식’을 자연의 본질로 파악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면서, 단순한 관물적 감회가 아닌 화자의 내면의식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자연의 근원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태도의 일면을 표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자연인식과 삶의 태도로부터 정서의 풍요로움과 삶의 활력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유한한 인간존재가 무한한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강호가사는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으로부터 촉발된 정서를 노래하는 성향이 작품의 주된 흐름을 이룬다. ‘생생불식’하는 자연의 경물을 완상하면서 그 경이로운 형상들이 불러 일으키는 생명력과 조화감을 다채로운 묘사·형용을 동반한 흥취로써 노래하는 작품들이 그것이다. 화자의 내면에 환기되는 그 이미지와 형상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곧 생태적 상상력의 한 모습이다. 물론 이때의 자연은 인간의 성찰에 의해 표현된 자연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존재의 사슬을 다면적으로 엮어낸 언어화된 자연’¹⁶⁾이다. 강호가사에 투영된 이와 같은 면모는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하는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을 형상화한 것이면

16) 우한용, 「생태문학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11면 참조.

서,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사대부들의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② 교감-對待共存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연장선상에서, 자연과의 교감(交感)을 통해 자아각성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 또한 강호가사에 두드러진 자아와 대상 사이의 대대적 관계맺기의 한 양상이자 생태적 상상력의 표현이다.

南風(남풍)이 건듯 부러 綠陰(녹음)을 헤쳐 내니
 節(절) 아는 皮꼬리는 어드러서 오뎛던고
 羲皇(희황) 벼개 우희 풋짐을 얼핏 썬니
 空中(공중) 저즌 欄干(난간) 물 우희 썬 잇고야
 麻衣(마의)를 니미 츄고 葛巾(갈건)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보는 거시 고기로다
 흐르밤 비 썬운의 紅白蓮(홍백련)이 셋거 피니
 바람의 업시셔 萬山(만산)이 향기로다

<성산별곡>

남풍이 건듯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 시절을 아는 피꼬리는 어디에서 날아오는가. 근심 없는 세월 속에 풋짐에서 얼핏 깨니, 가랑비에 젖은 난간 물위에 떠 있구나. 삼베옷을 띠둘러 입고 칩두건을 기울여 쓰고, 허리 구부려 바라보니 노니는 것이 고기로구나. 하룻밤 빗기운에 붉고 흰 연꽃 썬여 피니, 바람기운 없어서 온 산이 연꽃향기로구나.

<성산별곡>에 등장하는 여름 정경이다. ‘생생불식’하는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을 배경으로, 풍광 속 경물들과 하나가 되어 교감하는 화자의 모습이 한적(閑寂)의 정서와 함께 물씬 배어난다. 정연한 질서를 보이며 순환하는 자연의 생명력에 흡인된 화자는 자신이 놓여 있는 공간 속 경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치우침이나 어그러짐이 없는 자연의 평형(平衡)을 깨

닫고 거기에 동참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하여 자연의 경물들이 환기하는 다채로운 이미지와 함께 단순한 흥취 이상의 정서적 충일감과 창신(暢神)의 즐거움까지를 체험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자아와 대상과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순정한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을 체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에 닿아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향의식의 이면에는 자연과의 교감이 가져다 주는 ‘대대공존(對待共存)’에 대한 자각, 즉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에 대한 자각이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자각에 말미암는 정서적 충일상태와 더불어 삶의 여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담겨 있다. 시절을 알아 때맞춰 찾아드는 ‘피꼬리’, 맑은 여울 속을 오가며 자라는 ‘물고기’, 하룻밤 빗기운에 섞어 피어 온 산을 향기로 뒤덮는 ‘홍백련’ 등은 자연의 물상 자체면서도, 이를 포착하여 노래하는 자아와의 관계-교감을 통해 의미로운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묘사·형용하는 주변의 경물이나 화자가 표방하는 정서가 다를 뿐, 이러한 면모는 순환하는 계절의 흥취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정취를 노래한 강호가사 작품들에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비단 자연의 경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충일감과 창신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데 머물지 않고, 거기에 인간사와 결부된 의미나 가치 의식을 투영·형상화하는 작품들 또한 강호가사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작품들에 등장하는 자연의 경물들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시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대상물이기도 하지만,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신을 표상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공산(空山)의 설적(雪積)호고 만목(萬木)이 도잔(凋殘)호대
 특립(特立)호 저 송백(松柏)은 네 홀노 청청(靑靑)호니
 절스(節士)의 늑흔 뜻지 너 보고 흥기(興起)호다
 상풍(霜風)이 늑늘(凜慄)호고 빙벽(氷壁)이 형철(瑩澈)호대
 한 조각 맑은 들이 청텨(靑天)의 도요(照耀)호니
 군즈(君子)의 물근(勿君) 너 보고 감발(感發)호다

<낙지가>

눈 쌓인 계절이라 산천초목들 모두가 이슬어 쇠잔하건만, 소나무·잣나무만이 우뚝이 청청하게 서 있는 정경에서 절개 있는 선비의 높은 뜻을 기리는 흥취가 일어난다고 했다. 또 서릿바람이 차갑게 불고 얼어붙은 바위벽마저 투명하게 비치는 밤, 한 조각 맑은 달이 고요히 만물을 비추는 정경에서 군자의 맑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느껴 펴낸다고 했다.

이러한 모습은 자연의 경물들로부터 ‘감발(感發)’된 정서를 사유의 실마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경우의 하나일 수 있으며, 물외(物外) 즉 세상 물정의 바깥에서 인간적 계기와 결부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 점에서 자연에 대한 미적 지향의식의 일면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경물이 자아내는 흥취를 인간사의 가치덕목과 결부시켜 의미화하는 이러한 자연과의 관계맺기는, 요컨대 대상과의 교감을 통한 자아각성의 한 모습이기는 하겠으나,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관점에서는 ‘대대공존’에 의한 자연과의 진정한 관계맺기라 일컫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연장선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아각성을 추구해 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의 하나는, 자연과 ‘벗’하며 자족적인 삶의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는 태도다.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네
 煙霞日輝(연하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뻗는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할사
 功名(공명)도 날 씌우고 富貴(부귀)도 날 씌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외에 옛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포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흐니
 아모타 百年行樂(백년행락)이 이만흔들 옛지흐리

<상춘곡>

진달래꽃 꺾어 들고 술밭길을 걸어 올라 산봉우리 구름 속에 앉아 내

려다 보니, 곳곳에 떨어져 있는 마을들은 아늑히 연무에 잠겨 있고, 옛그제만 해도 겨울기운이 감돌던 들녘엔 봄기운이 완연하고 넉넉하다. 이렇듯 유유자적한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달리 부러울 게 있겠는가. 그래서 공명도 부귀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월과 더불어 지내는 것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거친 음식에 가난한 생활일망정 달리 허튼 욕심 내지 않나니, 아무렴 사대부 한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흡족하지 않겠는가.

어떤 욕심도 없이 그 자체로 자족적인 품성을 지닌 자연과 ‘벗’하며 스스로의 분수에 편안한[安分] 삶을 노래하고 있다. 안분에는 으레 빈천[簞瓢陋巷]이 수반된다. 그런데 화자는 이를 오히려 달갑게 낙으로 여기는 데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고 했다. 분수에 편안한 삶은 그 자체로 자족적이기에 달리 ‘부러울 것’이 없다. 세속적 의미의 부러울 것이라면 ‘부귀’·‘공명’으로 대변되는 영달(榮達)일 터다. 그러나 화자는 그런 ‘훗튼 혜음’이나 ‘분별’에 마음을 두지 않아 편안하다는 것이다. 하여 자연과 ‘벗’하며 안분지족하는 삶, 그 한평생의 즐거움[百年行樂]이 이만하면 더할 나위 있겠느냐고 했다.

자연과 ‘벗’으로 교감하며 자연이 선사하는 물상과 정경들로부터 삶의 즐거움을 얻는 생활은, 자연의 품성이 그러하듯 자족적이기에 소박하면서도 풍요롭다. 물론 이러한 지향의식의 이면에 개재하는 진정성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소박하고 절제된 삶 속에서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생태적이다. 필요 이상으로 갖추려 하고 부족하지 않은 데도 더 채우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의 결핍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생태적 사유 및 상상력과 결부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 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은 대체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며, 지나친 욕망이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지나친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는가가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을 제고하는 관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벗’으로 교감하며 욕망을 절제하는 가운데 삶의 즐거움과 위안을 얻는 태도는 때로 소박하고 단순하게 보일지라도 진정 가치 있는 삶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강호가사 작품들에 빈번히 등장하는 ‘안분지족’의 가치의식에 대하여, 그 이면에 경국제민의 사회현실에 대한 자의식이 개재해 있다고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듯 자연의 물상과 정경들을 통해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의식의 이면에는, 인간의 삶이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 자연이 자연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 또한 인간과의 조화, 즉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앞에서 살핀 자연의 경물이 자아내는 흥취를 인간사의 가치와 결부시켜 의미화하는 자연과의 관계맺기, 즉 자연의 경물을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신을 표상하는 매개체로 삼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강호가사 작품들 가운데에는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감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연장선상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아각성을 추구하는 데서 정신의 여유와 정서의 풍요로움을 노래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자연에 깃들여 있는 품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정신은, 조선조 사대부적 풍류나 산수미학에 깃든 정신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에 충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대대공존’의 삶을 체현하는 태도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호가사에 투영된 이와 같은 면모 또한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사대부들의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면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조화를 지향하는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특징적 일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③ 동화-天人合一

자연예찬의 시풍에 구현된 ‘물아일체’의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가 추구

하는 궁극의 상태는 대상에의 동화(同化)를 통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合一)하는 것이다. 자연의 경물이 자아내는 흥취를 노래하는 가운데, 화자 스스로가 대상에의 동화를 통해 그 경물 속으로 스며들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을 체현하는 상태에 이르러자 하는 경우다. 이러한 정서적 충일상태의 지향의식 역시 강호가사에 두드러진 자아와 대상 사이의 대대적 관계맺기의 한 양상이자 생태적 상상력의 표현이다.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物我一體(물아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룰쏘나 <상춘곡>

솔 아리 구분 길로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綠陽(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겨워 흐는 피야
 나모 새 즈즈지여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펴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로논가
 즈 서리 싸진 후의 山(산) 빗치 錦繡(금슈)로다
 黃雲(황운)은 쏘 엇지 萬頃(만경)에 편거괴요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쓰라 브니는다 <면양정가>

<상춘곡>의 ‘춘흥을 못이기어 교태부리 듯 우는 새소리’는 묘사 자체가 이미 자연의 경물에 동화되어 있는 화자의 정서 상태를 잘 말해준다. 그러한 정서적 충일감과 더불어 태당한 봄날 정경과 혼연일체가 되어 ‘물아일체의 흥’을 노래하는 것은 따라서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다.

<면양정가>의 ‘푸른 버드나무에서 교태겨워 우는 피꼬리’ 역시 <상춘곡>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나무와 억새풀이 우거져 녹음이 짙게 드리워진 난간에서 수면을 스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긴 줄음 내어 펴는’ 화자 또한 한가로운 여름 정경에 동화되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된서리 견힌 산에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게 물든 단풍, 넓은 들에 누렇게 익어 펼쳐진 곡식, 고기잡이하며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연신 붙어대는 피리소리로 묘사된 가을 정경 역시, 자연의 경물과 사람살이의 단면이 동화를 통해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대상에의 동화를 통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상태는 이른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경지며, 서로가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경지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할 뿐 아니라, 자연 자체가 바로 확장된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¹⁷⁾ 흔히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상태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온전한 조화상태에 대한 지향이야말로 강호가사를 위시한 자연예찬의 시풍이 표방하는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조선조 사대부들의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이 도달한 궁극의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 온전한 조화상태에 대한 지향은 강호가사를 위시한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작품들에서 대개 자연과의 동귀(同歸)로 표상된다.

竹杖芒鞋(죽장망혜)를 본 디로 잡고 신고
 千山萬水間(천산만수간)에 슬토록 오며 가며
 이시면 독이오 업스면 굴물망녕
 갑업순 江山風月(강산풍월)과 함께 늙자 흐노라

<낙빈가>

간소하고 청빈한 생활 속에서 산수 간을 오고 가며, ‘값’이 없어 댓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에 시비나 다툼이 있을 수는 없는 ‘강산풍월’의 품성을 닮아, 그러한 자연과 ‘함께 늙어가겠노라’고 했다. 이러한 자연과의 ‘동귀’는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시조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른바 ‘절로절로’와 상통한다. 그 자체로 자족적이면서도 풍요로운 자연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이 베푸는 혜택에 감사하며 어떤 인위나 허튼 욕심 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17) 박혜숙, 앞의 「시조의 생태미학」, 34면 참조.

곧 ‘자연과의 동귀-절로절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같은 자연에의 동화에 의한 ‘천인합일’을 지향하는 삶은 그 자체가 생태적 생활리듬에 충실한 즐거운 삶이다. 나아가 ‘자연과의 동귀-절로절로’로 표상된 자연에의 동화는 이른바 ‘자연 자체가 바로 확장된 자신’임을 느끼고 깨닫는 가운데, 만유(萬有)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즐겁고도 생태적인 삶의 체현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은 ‘자연을 참으로 알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만이 건강한 삶이며 지혜로운 삶’¹⁸⁾임을 우리 모두에게 넉지시 일깨운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듯 대상에의 동화를 통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경지, 즉 ‘물아일체’ 또는 ‘천인합일’의 상태로 일컬어지는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적 국면에 있어서 인간의 위상이다. 달리 말하면, ‘물아일체’ 또는 ‘천인합일’의 상태를 지향하는 삶에 있어서 새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이라 하겠는데, 이때 자연 속 인간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연인식의 요체이자 생태적 삶의 체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작품들에 볼 수 있었듯 자연을 수평적 교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벗’으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강호가사를 위시하여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작품들에서는 그 위상을 대개 ‘풍월주인(風月主人)’으로 상징한다.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흐고
 넷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흐 이 하건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므를 것가
 數間茅屋(수간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주인) 되어서라 <상춘곡>

18) 같은 논문, 31면.

羲皇(희황)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늘리고 내 百年(백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 홀소나

<면양정가>

위 작품들에 등장하는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어서라’·‘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에서, 자연 속 인간의 위상을 ‘풍월주인’으로 상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주인’은 요컨대 자연의 소유자라는 의미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을 누리는 존재라는 의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의 대표자로서의 인간’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은 앞장에서 논의한 바 자연과 인간의 ‘대대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싸 안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세계 전체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강호가사를 위시하여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특징적 단면으로서, 생태적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고전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을 초월한 생명력에 있다. 본고는 강호가사로 통칭되는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에 투영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의 특징적 면모들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사유와 삶의 방식에 깃든 지혜로부터 오늘의 녹색지향적 문화와 생태문학에 전망적 시각을 제시하면서, 우리 고전시가의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생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학이 다루고자 하는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연이나 생명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학의 녹색적 본질’¹⁹⁾ 즉 문학이 본질적으로 녹색이라는 언급은 생명 존재들에 대한 존중과 연민,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조화의 추구라는 문학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강호가사를 위시하여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문학작품 속에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삶과 가치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삶과 가치의식은 우주 만물을 ‘서로 화합하는 유기적 총체’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우주 만물은 순환하고 변화하면서도 일정한 질서나 이치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있게 하고 도우면서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대대적’ 사유, 나아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대표자’로서의 인간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함으로써 ‘물아일체’라는 이상적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지향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사유와 지향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문학작품들로부터 우리는 자연과 생태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으며, 오늘의 생태학적 관점이나 생태시가 확충해야 할 전망적 시각 또한 마련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강호가사를 위시한 자연예찬의 시풍이 표방하는 이상적 경지이자 정서의 요체는 ‘물아일체’다. 이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 속에서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합일하고자 하는 지향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강호가사에서는 이러한 ‘물아일체’의 경지이자 정서가 대상과의 ‘대대적’ 관계맺기를 통해, ‘생생불식’하는 자연의 이법과 질서를 성찰하여 자연의 생명성과 조화를 묘사·형용하는 양상으로 술회되기도 하며,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 ‘대대공존’의 관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각·체현하는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자연의 경물이 자아내는 흥취

19)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22면.

에 몰입·동화되어 자연의 생명성과 리듬에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삶을 지향하는 태도로 형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물아일체’의 경지이자 정서적 국면 각각에는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동반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이 짙게 투영되어 있다.

물론 강호가사를 위시하여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작품들에 등장하는 자연이 실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관념 공간에서 꾸며진 자연이라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자연인식의 내밀한 실상과 관련하여, 자연의 경물을 대하는 태도나 귀거래의 양상에 있어 작자마다 혹은 동일 작자에게 있어서도 작품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정서의 과편화’ 논의 또한 제기될 수 있다.²⁰⁾ 그러나 어느 경우든 작중 화자를 통해 노래되는 산수풍경이나 전원풍정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가치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이러한 가치 지향의식을 통해 현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태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작품 속 자연의 실재 여부나 작품 창작 상황 및 동기와 결부된 자연인식의 세부적 양상 문제는 작품에 투영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 논의와는 논의의 시각이나 층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오늘날 생태시의 지향점은 본질적으로 조선시대 자연예찬의 시풍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생태시와 자연예찬의 시풍이 발생적 토대는 다르지만,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세계를 보다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의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는 상통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생태시는 요컨대 ‘인간의 생태지향적 행동을

20) “자연시들에서 발견되는 생태주의적 면모에 정확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각 시들을 임의적이고 단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 시인의 시들 또는 창작 배경이 동일한 일군의 시들을 함께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시가 전체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배려 안에서 시인의 세계관적 지향을 살피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창작의 상황과 동기에 대한 고려 없이 한 작가의 일부 시 또는 여러 작가의 시 작품을 논자의 주제어 아래 재구성하는 것은 자칫 정서의 과편화를 초래함으로써 자의적 해석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조해숙, 앞의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흥취와 생명력」, 60면.)

현실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자각과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강호가사를 위시하여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작품들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은 자연의 생태적 질서와 원리에 바탕을 둔 삶의 태도 및 현실성을 담보한 실천에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녹색지향적 문화와 생태문학에 다채롭고 풍부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제공하면서, 정서적 국면에서도 또한 새로운 감각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통시대의 친자연적이며 생태에 충실한 생활태도 자체를 오늘날 그대로 수용하기는 곤란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통시대의 생태적 사유와 정서에 담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채우지 않고 여백을 남겨두는 일, 결핍이나 모자람을 무리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일, 각박하고 가열찬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침잠하는 일, 그리고 속도와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일 등은 우리를 훨씬 더 생태적인 삶에 가깝게 이끌 것이다. 나아가 이같은 삶에 대한 사유와 가치 지향의식은 우리에게 치유(Healing)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적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인간의 삶마저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 자연을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서양의 인식논리와 달리,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나 귀의 등을 강조하는 동양사상이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이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보다 생태적 혜안이나 대안에 보다 근접해 있음을 시사한다.

생태철학은 실천철학이다. 조선시대 자연예찬의 시풍을 구현한 작품들은 오늘의 우리에게 바람직한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을 일깨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귀중한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의와 가치를 거듭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李 滉, 『陶山全書』, 퇴계학연구원, 1988.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七』(上海 :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 강미진, 「강호시조의 생태주의적 의의와 교육」, 부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제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 김상진,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기녀시조」, 『시조학논총』 제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 김형철 외 6인, 「한국인의 자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보고서, 2001.
- 손민달, 「한국 생태주의 문학 담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8.
- 박혜숙, 「시조의 생태미학」, 『녹색평론』 제42호, 녹색평론사, 1998.
- 박희병, 「한국의 사상적 전통과 생태적 관점」,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배다니엘, 「중국 자연시와 서구 생태시의 비교적 고찰」, 『중국연구』 40집, 한국외국어대 중국연구소, 2007.
- 우한용, 「생태문학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4.
- 유정선, 「시조에 나타난 자연과 생명」, 『한국시가연구』 제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 유해춘, 「자연시조에 나타난 녹색담론」, 『시조학논총』 제37집, 한국시조학회, 2012.
-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 이남호 · 김원중 · 우찬제, 「환경문제와 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9.
- 이도원 엮음,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 이동희, 「한국 성리학의 환경철학적 시사」, 『동양철학』 13집, 한국동양철학회, 2000.
- 이미정, 「조선전기 시조의 자연과 생태의식 연구-생태시의 인식기반 모색을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종호, 「퇴계 이황의 유기체 우주론과 생태사상」, 『한국한문학연구』 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한국시학연구』 1집, 한국시학회, 1998.
- 임도한, 「생태문학론의 전개와 한국 현대 생태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1998.
- 조해숙, 「고전시가에 나타난 자연의 흥취와 생명력」, 『돈암어문학』 13집, 돈암어문학회, 2000.
- 최미정, 「조선중기 향촌 유학자의 생태적 상상력과 자연읽기-풍수지리에 의한 <지수정가> 재조명」, 『한국학논집』 41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0.
- 최진원, 「<면양정가>의 畵中詩-山点透視)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최홍길, 「우리 시조에 나타난 생태미학 연구-자연친화와 생명존중 사상을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한연주, 「생태주의 관점에서의 시조 교육」,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n Ecological Thoughts and Imaginations in Gang-Ho Gasa

Park, Young-ju

In the lyrics works(Gang-Ho Gasa) for songs about nature, the life of humans in which nature and humans form harmonious relationships and value consciousness are projected. This paper considered the ecological thoughts and imaginations contained in these lyrics works. The issue of ecology is a universal issue in our lives, which is not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time.

In Gang-Ho Gasa, humans have the status of 'representatives of nature not rulers'. The lyrics contain humans' consciousness aiming at reaching the ideal state of 'the oneness of objects and I' by being united with the liveliness and order of nature. From these works that contain such ecological thoughts and aiming consciousness, we can newly consolidate our sensations and perception of nature and ecology. Furthermore, we can also prepare the prospective view that must be expanded by the ecological view or ecological poetry of today. This paper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studied the modern meanings of classics from a new viewpoints.

Key words : Gang-Ho Gasa, ecological thoughts and imaginations, the oneness of objects and I, ecology